

※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정부와 한은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
BIS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이하,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을
발행하여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국민들도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금번 우리의 실험에 BIS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CBDC 활용성 테스트 의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소위 토큰 경제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가지고 올 장점은 극대화하면서도
규제 공백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할 때부터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혁신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을 제정(‘23.7월)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권리를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화할 수 있는
토큰증권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테스트 계획을 발표하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활용성 테스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① 토큰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의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또한,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아울러, 현재 발행자 및 가치유지와 관련한 리스크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율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이번 활용성 테스트가 말 그대로 '테스트'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첫째, 은행의 예금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된 금번 실험에 한하여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부과할 것입니다.

② 둘째, 예금토큰 거래의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 및 이체 등의 거래내역을 장부(원부)에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테스트 과정에서는 분산원장의 기록과 은행의 장부 기록을 1:1로 실시간 연계(mirroring)하여 지급결제의 법적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③ 셋째, 기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입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지급결제 테스트이기에 거래기록 유출 등 개인정보 문제와 타 자산으로 교환보장, 예금자 보호 여부 등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세부모델 설계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 충분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4분기까지,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참여 은행 등과 함께 실무TF를 운영하여, 말씀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적인 이슈가 없는지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4 맺음말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이에 기반한 토큰경제의 출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실체가 모호한 자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과
규제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가상자산법, 토큰증권 규율체계 등을
하나하나 마련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I.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명순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님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기까지
한국은행에서 그간 기울이신 노력과 수고에,

그리고, 이러한 중앙은행의 새로운 시도가
현행 금융 시장과 제도 안에서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신 금융위원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간 활용성 테스트 준비에 애써주신
한국은행과 각 유관기관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의미

2023.7월 발표된 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현재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CBDC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연구를 해 왔고,
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그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또 한 번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이번 활용성 테스트 준비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한편,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위험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가
CBDC 그리고 디지털통화 전반에 대해
긍정적 전망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 마무리 말씀

금융감독원도
이번 테스트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현재 규율체계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향후 진행되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준비해주신 한국은행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Ⅲ. 한국은행 부총재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부총재 유상대입니다.

오늘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님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작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주신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테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2 CBDC 활용성 테스트 수행 방향

어떤 분들은 ‘변화’, ‘혁신’이라는 단어가
중앙은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중앙은행은 언제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혁신적인 지급결제인프라 도입을 주도해 왔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춰
1994년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주 7일 24시간 운영되는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은 현금 이용 감소 등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범용 CBDC 연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용 CBDC의 경우 주요국 동향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의 도입 준비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자산의 토큰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디지털 화폐의 특성인 프로그래밍 기능의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그 가운데 CBDC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번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구축한 안전한 테스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 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테스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다수의 은행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월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이제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테스트가 당초 목표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